

munities(T-271/03), 10 April 2008.

[4] 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LinkLine Communications, Inc. v. Pacific Bell Telephone Co.*, (503 F.3d 876), 11 Sep. 2007.

APEC TEL의 보편적 서비스 논의 동향

정보통신협력연구실 연구원 박지원
(T. 570-4214, ppakjee@kisd.re.kr)

1. 개 요

“보편적 서비스 증진을 위한 도전과 전략”은 지난 4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던 제7차 통신장관회의(TELMIN7)의 논의 주제 중 하나였다. “방콕선언문”에서도 중요한 의제였던 보편적 서비스는 그 간 APEC TEL 내에서 꾸준히 있어왔던 정보격차해소 논의의 연장선에서 사회경제적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각 회원경제체는 2015년까지 개별 회원체가 브로드밴드 보편적 접속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뜻을 같이 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적인 정책, 변화하는 IT 환경에 걸맞은 규제 구조의 변화, 그리고 저발전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ICT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했다. IT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는 기술이용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라는 측면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비록 APEC이 지역경제협력체라는 다소 느슨한 형태의 지역통합을 지향한다는 한계점은 분명히 있는 만큼, APEC 내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가 전개될 보편적 서비스는 실제적인 협력 방향이 도출되는 것 보다 각 회원체의 차별적인 문제인식과 정책 방향을 공유할 수 있다는 데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 보편적 서비스 논의

지난 해 10월 개최되었던 APEC TEL36 회의에서 보편적 서비스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지난 3월의 APEC TEL37 회의에서는 워크숍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었던 보편적 서비스 관련 설문 결과가 발표되었다. APEC TEL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편적 서비스 관련 논의에서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다. 하나는 APEC 회원체 사이의 경제 개발 수준에 따른 관점의 차이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성향의 차이에 따른 관점의 차이이다.

〈표 1〉 “APEC의 보편적 서비스 목표” 관련 핵심 내용

| 회원경제체 | 주요 내용 |
|----------|---|
| 뉴질랜드 | 첨단 기술로부터의 소외 계층 배려 정책 중점 |
| 대만 | 변화한 IT 시장 환경에 맞춘 보편적 서비스 목표 설정 |
| 미국 | 시장 원리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 및 기술 중립의 원칙 |
| 베트남 | 농촌 지역 보편적 서비스 구축 이니셔티브 |
| 태국 | 보편적 서비스 법안 제정을 통한 농촌 정보화 |
| 파푸아 뉴기니아 | 농촌 지역 통신 네트워크 제공 목표 |
| 칠레 | 기술로부터 고립된 지역에 닿는 통신 프로젝트 수행 |
| 호주 | 통신 사업자 간 경쟁과 보편적 서비스 목표 사이의 균형 |
| 중국 | 농촌 지역 IT 서비스 보편화 위한 “Village Connect” 프로젝트 |
| 말레이시아 | “Technology Neutral Approach” 통한 소외그룹 네트워크 서비스 확대 |
| 일본 | 2010년까지 모든 통신기기에 대한 보편적 접근 실현 목표 |
| 인도네시아 | 유선통신 접근성 확대 후 무선통신 접근성 확대(2단계 전략) |

APEC은 다양한 수준의 21개 회원경제체가 속해 있는 지역협력체로써,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되는 내용들을 보면 각 회원경제체의 정책 방향을 통해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의 경우는 IT 관련 정책 중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 중의 하나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기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는 시장의 기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 IT 기술에 있어 공적 부문의 교육과 능력 배양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좀 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기술로부터 소외받지 않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연발생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장 자유화와 경제의 기능적 통합을 주로 강조하는 APEC 내에서,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해 이루어지는 논의는 이 같은 배경에 보다 힘을 실는다.

APEC에는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과 같은 경제 수준 세계 상위의 선진경제체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개발도상국 수준의 경제 상황에 놓인 회원경제체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 실제로 호주의 경우 보편적 서비스 논의를 살펴보면 기술 수준을 상승시키기 위한 통신 사업자 간의 경쟁과 함께 보편적 서비스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유선전화, 공중전화, 유선 인터넷 등의 유선 통신 기술 기반이 이미 보편적인 경우 순차적으로 다음 기술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것 보다 무선 통신 확산 속도의 격차를 없애는 것이 보편적 서비스 목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한 도전 과제는 기술발전의 속도와 보편적 서비스 확산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있다. 반대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공통적으로 농촌과 도시 지역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에 관심을 둔다. 경제 개발이 진행 단계에 있는 경우 대부분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회원경제체들에게 가장 큰 과제는 농촌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실제로 유선 통신 기반조차 미약한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초고속 브로드밴드와 디지털 융합 등의 IT 신기술 상황을 경쟁적으로 따라잡는다는 것은 자칫 비현실적인 목표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유선 전화, 아날로그 TV, 공중전화, 우편 시스템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농촌지역에서 보편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언급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경제 발전 수준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 목표의 차이와 더불어 각 회원체가 지닌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도 보편적 서비스 목표에 관한 정책의지에 차이가 있다. APEC 내에서 미국을 필두로 캐나다, 홍콩 등의 회원경제체는 시장 기능에 대한 강조를 두드러지게 하는 특징을 보인다. 지난 4월에 개최되었던 제7차 통신장관회의에서도 미국은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기보다 시장 기능에 따라 통신 사업자가 보다 많은 투자와 기술 혁신, 그리고 경쟁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보편적 서비스 역시 시장 자율에 의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의 핵심이다. 반면에 칠레 혹은 페루와 같은 남미 지역 회원경제체들의 경우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입장 있어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 TEL36 회의의 보편적 서비스 워크샵에서 회의를 개최했던 칠레는 남북으로 길게 늘인 지형적 특성을 언급하며 통신 기술이 고르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술 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불평등한 통신 접근성 개선이 정부의 과제임을 언급했다. 페루 역시 산악 지대에 주로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통신 기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필수재로서의 통신 기술이 누구에게나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서비스 시설 설치를 언급했다. 정부의 역할은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기술 수준의 보편성에 대한 의지를 밝힘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하고자 하는 데 있다.

3. 결 어

IT 기술은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완전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목도하고 있다. 통신 기술 발달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방송과 통신의 영역이 점차 접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논의도 그 속도에 발맞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보 격차의 문제는 항상 기술 발전과 그 패를 같이 하며 중요한 도전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보편적 서비스가 계속 강조되는 것 또한 이러한 상황을 정책을 통해 풀어내는 것이 사회적

과제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한 정책의지는 비록 실현 방식의 구체성은 다양할 수 있으나 기술 발전 이면의 그늘에 놓인 소외 계층을 배려한다는 목표는 모두 같다. 디지털 융합 시대와 세계화라는 두 가지의 큰 화두에 맞추어 조직을 개편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시킨 우리나라도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강화에 역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머지않아 아날로그 방식의 송출이 중단될 지상파TV 수신에 대비해 디지털 컨버터를 보급하고 절대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는 구체적 방안 등도 함께 발표되었다. 향후에도 APEC TEL 내에서는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한 주제가 지속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디지털 기술로의 융합 가속화와 그러한 IT 시장 환경의 변화에 걸맞은 규제, 정책 등의 논의가 확산되는 만큼 모든 사람들이 기술의 혜택을 받는 디지털 시대에 대한 논의도 함께 풍부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 [1] TEL36, TELMIN7 발표 자료, www.apectelwg.org
- [2] 전자신문 4월 23일자, “보편적 방송통신 서비스 역점”